논어 3편 팔일 17장 · 원문·풀이

子貢欲去告朔之餼羊。子曰：「賜也！爾愛其羊，我愛其禮。」

독음 · 자공욕거곡삭지희양 자왈 사야 이애기양 아애기례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공은 고삭 제사의 양을 없애려 했지만 공자는 남은 의식이라도 지켜 예가 이어지기를 바랐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欲 욕심낼 욕 욕 / 去 갈 거 거

告 알릴 고 / 朔 초하루 삭 삭 / 之 갈 지 / 餼 꾸밀 희 희

羊 양 양 양 / 曰 가로 왈 / 賜 줄 사 사 / 也 어조사 야

爾 너 이 이 / 愛 사랑 애 애 / 其 그 기 / 我 자기 아 아

禮 예도 례 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